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남진규  
문화홍성위원회 문화산업 전문위원

우리나라 각 도시와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다. 대부분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위인, 그리고 동물을 의인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외에서 캐릭터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사례를 참고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사례를 말하자면 2012년에 약 300억 원(약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일본 쿠마모토현의 쿠마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캐릭터 자체도 귀엽고 독특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큰 성공을 가져오게 한 요인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쿠마몬이 성공하기까지는 단순히 캐릭터를 개발하여 대외

## 지역 캐릭터 활성화

에 공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첫째로 정말 지역에 캐릭터가 필요한가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케이블카가 돈 된다고 하면 모든 지역이 케이블카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과 같이 타 지역에서 캐릭터로 성공했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캐릭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도시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누가 캐릭터 선정에 있어 의견을 갖느냐이다. 지역 캐릭터 사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소재와 좋은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계의 의결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할 배가 산으로 향하는 경우를 경험한 바가 있다. 계획 수립은 당연히 기관이 담당하겠지만 개발에 있어 모델 선정 및 디자인과 스토리텔링, 향후 발전 계획은 최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높게 반영하고 시민들 및 대중의 참여와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전문가의 최종 결정은 결코 좋은 캐릭

터를 개발하여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어렵다. 쿠마몬의 경우 원래 단순 로고 개발에서 시작됐으나 제안 업체 의견 수렴하여 캐릭터화로 발전시켜 성공한 사례로 의결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세 번째로 캐릭터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이다. 예전 한 지역의 캐릭터 개발 업체 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사업 예산 자체가 대부분 캐릭터 개발이고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한 예산 반영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이는 지역에서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캐릭터를 개발하여 대외에 공표해 보고 안되면 말지 하는 식의 사업 계획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향후 발전 방안까지의 예산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역마다 캐릭터를 가볍게 생각하여 남발하게 되면 캐릭터로 인해 역으로 지역에 안 좋은 이미지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야 한다.

네 번째는 관리이다. 캐릭터를 개발하여 공표하기 전까지는 사업 방향 및 계

획 등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또한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적용 상품의 경우에도 캐릭터로 인해 상품과 캐릭터가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지역 특산물이라고 무분별하게 캐릭터를 적용시킨다면 캐릭터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캐릭터도 연예인들에게 적용되는 철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으로 처음 기획 시점부터 사업 관리까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이다. 쿠마몬의 경우 철저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 약 1만 5000여 품목에 라이선싱되어 이제 지역에 국한된 캐릭터를 넘어서서 해외에서도 판매 유통되고 있다. 이는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캐릭터는 주민들이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캐릭터라 생각한다. 캐릭터 개발 및 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인의식을 높게 된다면 캐릭터의 지역 대표성과 정체성(Identity)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의료칼럼

### 설탕 중독



백혜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연년생 자녀를 둔 가정주부 장모(32)씨는 올해 처음 다섯살 된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자녀 둘에게 차이던 때보다 여우가 생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단맛에 집착하기 시작한 첫째 아이에 대한 통제가 부쩍 어려워졌다.

장씨는 “아이집에 와서도 단 과자류를 찾고, 양을 줄이려 하면 심하게 떼를 쓰는 등 전에 없던 태도를 보여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유아기는 미각이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강한 단맛에 길들여지면 평생 설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문제는 설탕에 중독된 어린이가 자라면 만성질환 어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사탕수수 등 천연원료로 만들어지는 설탕은 그 자체로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함유돼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원으로 변환돼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사용된다.

특히 뇌의 활동은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뇌가 혹사되고 피로할 때는 자연스럽게 단맛을 찾게 된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내분비계가 교란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설탕 중에서도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지고 칼로리만 남은 정제 설탕은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남은 양은 글리코젠으로 변환돼 체내에 축적되거나 다른 장기 활동을 방해한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각종 성인병에도 문제가 된다.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면역력도 저하시킨다. 체내에 남은 잔여물이 포식세포 수치를 낮춰 몸을 산성화하기 때문이다. 설탕의 당분은 곧바로 혈당을 높여준다.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급속도로 떨어트린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기를 반복하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내분비계가 교란된다. 갑상선 이상, 부신고갈로 인한 만성피로, 저혈당 등이 모두 이 내분비계 교란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인체 상의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설탕이 주는 갈증과도 달콤한 자극이 계속된 설탕의 섭취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설탕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각종 항정신성의약품들이 가져다주는 것과 유사한 정신적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우리 몸은 이 같은 만족감을 계속 느끼고자 설탕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경향이 빠진다. 당분에 대한 의존도는 어른보다 아이가 더 높다.

국제보건기구가 규정한 일일 권장 당분 섭취량은 50g이다. 각설탕 15개 가량의 분량이다. 우리 국민 중 성인인 국제기준을 웃도는 60g을 섭취하고 있다. 어린이는 조금 더 많은 70g을 섭취한다는 통계가 있다.

설탕을 섭취하게 되는 주동력은 뜻밖에도 탄산음료를 포함한 음료다. 어린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음료 중 일부에는 보

통 10~20g의 당분이 함유돼 있어 금세 일일 당분 섭취량을 섭취하게 된다. 음료에 흔히 함유되는 액상과당은 설탕과 달리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돼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 체내 흡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설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 급격하고 과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

평균 당분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어린이는 집중력과 학습능력이 약화되고 과잉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건강 문제로 발생한다. 치아나 비만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체내 칼슘이 배출돼 성장기 근육 및 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성인에게 발생하는 면역력 감소의 문제는 어린이에게도 나타난다. 면역력이 감소되면 염증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지는 데, 이로 인해 각종 잔병치레가 잦아질 수 있다. 어릴 때 설탕의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대체로 교정이 어렵다.

각종 건강상의 문제를 끌어안은 채 어른이 되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설탕 원료의 조미료나 식품보다는 단맛을 내는 과일이나 채소로 만든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평소 식습관 선택할 때 당분 함량과 함유된 당분의 종류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기고

## 독서, 신문읽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김광태  
경협 안성교육원 교수

독서의 계절이다.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발명왕 에디슨의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육체는 단련하면서 독서를 통한 정신근육의 강화는 소홀히 한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이책 기준으로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71.4%, 독서량은 9.2권에 불과하다. 성인의 종이책 기준 평균 독서량이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된다는 얘기다. 정신근육을 강화하는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점을 생각해 보자.

먼저, 무릇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독서광이다. 책을 읽는 리더(reader)가 세상

을 이끄는 리더(leader)가 되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그리고 조조는 전쟁터의 말 위에서 책을 읽었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할 수 있었던 지략과 용기가 독서에서 나온 셈이다. 가깝게는 빌 게이츠의 경우를 보자. 그의 저택에는 무려 2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한 개인 도서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주중에는 매일 30분, 주말에는 3~4시간씩 거르지 않고 독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성공은 책을 읽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 책을 읽다 보면 지식도 쌓이지만 부지중에 사고의 폭이 넓고 깊어지며 세상은 보는 혜안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일상 속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책읽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또한 앉아서 하는 삶의 여행이기도 하다. 독서광으로 알려진 미국의 투스벨트 대통령도 ‘우리는 책을 통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유용하게 쓰일 탄약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독서를 현실 타개와 미래 계획에 없애선 안 될 동반자

로 여겼다. 더불어 독서의 가장 큰 장점은 간접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간접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인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외길에서 직접경험에 의한 학습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며 무엇보다 시간이 기다려주지도 않는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소크라테스도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남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하며 만들어 놓은 책을 읽으면 손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는 하지만 선뜻 책 읽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독서를 자연스럽게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꺼운 책으로 독서를 시작하기보다는 신문 읽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신문은 짧은기사 중심이어서 우선 접근하기 쉽다. 신문을 꾸준히 읽는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신문사 실이나 칼럼 등의 기사는 국내외 주요 사

건을 원년부터 결과까지 예리한 시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를 읽으면 자연히 통찰력과 논리력이 향상된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객관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균형된 안목을 갖게 된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통을 위한 소스드 신문에서 얻게 되지만 자녀의 학습능력과 독서력 향상을 위해 신문을 읽도록 권해보자.

어느덧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디지털기 없는 하루를 생각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다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전자책 출판의 성장률이 하향추세에 있고, 일부 지역에선 마를 서점이 다시 설립되고 있다.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허버트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을 되새겨 보자. 독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딱 좋은 계절이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수불석권(手不釋卷)의 뜻을 되살려 정신을 단련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앉아서 하는 풍성한 삶의 독서여행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社說

### 여행사 가이드에 수학여행 안전 맡길 수 있나

여행사 가이드가 수학여행단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교육부 지침에는 가이드들도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가을 수학여행이 한창인 요즘 학부모들은 '무늬만 안전요원'인 가이드들에게 자식들의 안전을 맡겨야 하나며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는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5학급 또는 150명이 넘으면 50명당 1명씩, 규모가 작더라도 1명 이상은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요원은 간호사, 응급구조사, 경찰·소방 경력자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는 이 들뿐만 아니라 여행사 가이드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역시 교육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시간 안전교육을 받으면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행 업계에서

는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방침에 일단 따르면서도 전문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학여행이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구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사 가이드 역시 재난안전교육 1시간, 수상·산악 응급처치 1시간, 응급처치 일반과정 10시간 연수만 받으면 안전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 학생들의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손쉽게 가이드를 동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형식적으로 요건만 채운 다수의 가이드가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여행 코스를 안내해야 할 가이드가 안전까지 신경 쓰다 보면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들 안전요원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인술교사나 학교가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하루 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순천만정원 음악제 돈벌이에 급급해서야

순천만정원의 국가지정원 지정을 축하하는 '순천만국가지정원 음악제'(이하 음악제)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높은 입장료를 받기로 해 순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지정원을 축하하는 공식인 문화행사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13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순천만 국가지정원 음악제 집행위원회는 순천만정원의 제1호 국가지정원 지정 홍보를 위해 순천시로부터 무료로 장소를 제공받아 오는 17일 순천만정원 잔디마당에서 음악제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제에는 티베트 출신 영성음악가 디첸 삭 타사이, 그림미상 수상 가수인 조안 웨나도어, 한국의 소리꾼 강권순, 재즈 디바 나윤선, 테너 임태경과 뮤지컬 디바 차지연 등 유명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음악제의 입장료가 최대 10만 원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최 측이 순천시

로부터 행사 장소를 무료 제공받은 데다 GS·현대제철·한국전력 등 기업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의 후원금까지 받고서도 고가의 입장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은 “국가지정원을 지정한 목적이 시민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라며 “음악회 티켓 발매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시 지난 3년간 순천만 정원에서 열린 수백여 차례의 공연과 행사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음악제 역시 국가지정원 지정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무료음악제를 예상한 이들이 많았다. 물론 순천시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음악제인 만큼 무대 설치와 출연료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야 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렇다 해도 장소 대여료도 없는 데다 막대한 후원금까지 챙길 것을 감안하면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 無等鼓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시다운 구절은 한 행뿐이군.” 더벅머리를 한 국문과 학생이 집에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자 시인은 대뜸 핀잔을 줬다. 대학노트한 권에 쓴 습식시 50여 편을 살펴 주시길 간청한 지 무려 한 달, 겨우 한마디 얻어 들은 게 이런 흑평이었다.

과묵했고 곁을 내주는 것에도 인색했던 이 시인은 서정주와 한국 시단을 양분했던 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 조선대 교수였던 다형은 열정과 패기로

개인적으로는 다형은 흡모했던 학창 시절, 문 시인을 알게 된 것은 축복이었다. 그가 40대 중반에 쓴 수상집 ‘저 미치게 푸른 하늘’을 손에 넣는 순간, 다형을 곁에서 되치는 것만 같았다. 시에서 느끼지 못한 다형의 향취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왜 자신의 호를 다형으로 지었는지 말해주는 대목은 인상 깊다. 다형은 “나의 시는 커피 감정(鑑定)만큼 최고의 경지 조선에 교수였던 다형은 열정과 패기로 시를 썼던 문병란을

### 시인의 향기

매번 꾸짖었다. 시에 ‘추악’이나 ‘미련’이니 하는 날말 하나만 있어도 “이제 어떻게? 시야?”라며 불호령을 내렸다. ‘눈물’이란 말을 함부로 썼다며 “시와 생물학도 구분 못하니?”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시인의 성정이 이렇다 보니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문청(文淸) 대부분이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맷집(?)이 좋았던 문병란은 빈번한 퇴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를 내밀었다. 마침내 다형은 “자네 지독하군”이라는 짧은 말로 입문을 허락했다. 지방대생이었던 문병란은 이렇게 중앙 문단의 유력자인 ‘현대문학’에 다형의 추천으로 시인이 됐다.

처럼 말했다. ‘동다승’ (東茶淸)에 견줄 만한 커피 어둡도 깊었다. “좋은 커피는, 눈으로 보면 농(濃)하나 머금으면 담(淡)해야 하고, 한 모금 마시면 새콤하거나 달게 스미는 것은 나쁘며, 찬물은 머금은 것 같아 혀바닥위에 평 풀어야 한다.”

전라도, ‘백제인 토종’(소설가 이호철 선생의 표현)의 목소리로 민족과 통일을 노래했던 문병란 시인이 최근 우리 곁을 떠났다.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 김현승과 그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어 주던 맷집이 끊어진다. 그러나 문병란 시인 없는 광주의 앙람동 ‘다형 다방’은 이 가을에 더 없이 쓸쓸하다.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버서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다 자 인 실 2200-536 사 을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87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